



한 국 기 독 교 장 로 회



경 동 교 회

Kyungdong Presbyterian Church

제74년 25호

성령강림 후 둘째 주일, 6·25 민족화해주일

2019년 6월 23일

예배시간 1부 09:30

2부 11:30

성령이 온 누리에 | 정명오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04(장충동 1가)

Tel: 02-2274-0161~3 Fax: 02-2277-0798

<http://www.kdchurch.or.kr>

전주

사랑의 주여, 저희가 여기 있나이다(J. S. Bach) 1부 오르가니스트: 채문경 권사
2부 오르가니스트: 신재우 집사

모임

(*는 일어서서, 몸이 불편한 분은 앉아계셔도 됩니다.)

*모임찬송

9장(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다함께

*예배부름

목 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강림 후 둘째 주일이며, 6·25 민족화해주일입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시고(요 16:8),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요 16:13),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행 2:38),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회 중: 아멘.

*송영

성가대

*시편교독

목 사: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혈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혈떡입니다.

회 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뵈을 수 있을까?

목 사: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회 중: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목 사: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 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회 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할렐루야(시 42편).

경배찬송

401장(주의 곁에 있을 때) 다함께

죄의 고백

목 사: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회 중: 우리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우리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목 사: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회 중: 우리를 씻어 주십시오. 우리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목 사: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회 중: 우리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시 51:1-11).

응답송 **주여 자비 베푸소서**(경동찬송 12장) **다함께**
주여 자비 베푸소서 주여 자비 베푸소서 주여 자비 베푸소서

침묵의 기도 **다함께**

용서의 선언 **목 사:**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며,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시는(시 145:18-20),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회 중: 아멘.
응답송 **할렐루야**(경동찬송 6장) **다함께**
할레 할레 할렐루야 할레 할레 할렐루야
할레 할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2번)

말씀

구약의 말씀 **열왕기상 19:1-7** **1부: 최 혁 집사**
2부: 이승환 집사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네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 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 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렘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로렘 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 때에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 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 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응답송 **변함없는 주의 말씀**(경동찬송 25장) 1절 **다함께**
변함없는 주의 말씀 듣고 살아라 우리 말과 우리 맘이 진실하여라

서신의 말씀 **갈라디아서 3:23-29** **1부: 이경주 집사**
2부: 최송이 집사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간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응답송

변함없는 주의 말씀(경동찬송 25장) 2절 **다함께**
생수 되는 주의 말씀 먹고 살아라 우리 삶에 기쁜 샘이 솟아나리라

*복음의 말씀

누가복음서 8:26-39 **목사**
그들은 갈릴리 맞은 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닿았다. 예수께서 물에 내리시니, 그 마을 출신으로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더러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셨던 것이다. 귀신이 여러 번 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서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네 이름이 무엇이나?”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 곳 산기슭에, 놓아 기르는 큰 돼지 떼가 있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 돼지 떼는 비탈을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서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도망가서 읍내와 촌에 알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난 그 일을 보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가를 그들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자 거라사 주위의 고을 주민들은 모두 예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되돌아가시는데,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 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네게 하신 일을 다 이야

기하여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알이 온 읍내에 알렸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응답송

변함없는 주의 말씀(경동찬송 25장) 3절 **다함께**
등불 되는 주의 말씀 믿고 따르라 어둔 세상 걸어가도 안전하리라

친교와 소식

기도

응답송

찬양

..... **목사**
..... **강혜정 장로**
..... **성가대**
두려워 말라(T. Tertius Noble) **1부 성가대**
지휘: 박수길 장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지여(Felix Mendelssohn) **2부 성가대**
지휘: 김선아 집사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 **채수일 목사**
..... **설교자**

설교

기도

보냄

봉헌과 찬송

*봉헌기도

*보냄찬송

*축도

*송영

후주

428장(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다함께**
..... **목사**
635장(하늘에 계신) **다함께**
..... **목사**
..... **성가대**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대니(A. S. Sullivan) **오르가니스트**

『경동찬송』은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알리는 말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거나 교회생활에 대한 문의를 원하시면 **새교우 등록실(친교실 옆)**을 방문해 주십시오.

새교우를 환영합니다.

김수지(관악/경청)

1. 교우소식

- ▶**장례:** 故 윤순자 권사(김혜순 권사 모친 · 이강백 집사 장모, 이회재 집사 외조모, 15일(토) 소천, 18일(화) 발인)
- ▶**출산:** 강바다 교우 · 김윤진 교우(강한빛[아들], 9일(주일))
- ▶**수상:** 김혜순 권사(캐나다 그리핀 시 문학상(Griffin Poetry Prize), 6일(목), 캐나다 토론토)
- ▶**공연:** 김선미 집사(소프라노 김선미 독창회, 25일(화) 오후 8시, 금호아트홀 연세)

- ▶출국: 심재식 집사·장광자 권사(24일[월], 말레이시아)
정철언 교우(25일[화], 독일)
- ▶꽃드림: 신창규 집사·김경애 집사(부모님 추모)

2. 기도회

- ▶화요일침기도회: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소예배실

3. 모임

- ▶한나1소화: 오늘(23일) 1부 예배 후 여신도실
- ▶한나2소화: 오늘(23일) 1부 예배 후 소예배실
- ▶루디아2소화: 오늘(23일) 1부 예배 후 당회실
- ▶에스더1·2소화: 오늘(23일) 1부 예배 후 교육관 206호
- ▶장청화: 오늘(23일) 1부 예배 후 교육관 203호(강좌: “헬레니즘과 유대 기독교 전통의 대화”, 강사: 김희준 집사)
- ▶여신도성가대: 26일(수) 오후 6시 성가대실
- ▶노아과이어: 29일(토) 오후 4시 성가대실
- ▶선교와나눔위원회: 다음 주일(30일) 1부 예배 후 소회의실

4. 새교우 환영회

- ▶일시와 장소: 오늘(23일) 오후 1시 경동갤러리카페
- ▶대상: 2018년 11월-2019년 4월 예비등록교우
- ▶주관: 새교우위원회(위원장: 심정기 집사)

5. 여신도회 바자회

- ▶일시와 장소: 오늘(23일) 1부 예배 후 친교실
- ▶품목: 유정란, 유기농 키위, 고사리, 천해무다시팩, 들기름, 참기름(장바구니 지참)

6. 경청 이야기마당-‘공정여행의 의미와 필요’

- ▶스토리텔러: 최정규 사업단장(국제민주연대 공정여행)
- ▶일시와 장소: 오늘(23일) 오후 12시 50분 장공채플실
- ▶참가: 관심 있는 교우 모두

7. 애광원 바자회

- ▶일시와 장소: 다음 주일(30일) 오전 10시 친교실

8. 위원장 전체회의(2/4분기)

- ▶일시와 장소: 다음 주일(30일) 오후 1시 30분 교육관 203호

9. 한나1·2소화 야외예배

- ▶일시와 장소: 7월 4일(목) 오전 9시(*교회 출발) 생명의 빛 예배당, 엘리시안강촌

10. 제1기 경동 에큐메니칼 장학생 선발공고

-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에큐메니칼 리더 양성을 위한 ‘제1기 경동 에큐메니칼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이를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선발인원: 국내·외 장학생(*신학대학원 재학생 이상) 각 1명

- ▶**장학금:** 국내-입학금을 포함한 매 학기 등록금 전액
 국외-한 학기 최대 500만 원, 1년 최대 1,000만 원
- ▶**접수기간:** 6월 10일(월)-6월 28일(금)
- ▶**문의:** 에큐메니칼 장학위원회(위원장: 강승구 집사)

11. 수요 아침·저녁 예배 장소 안내

하절기(7-8월) 수요 아침·저녁 예배 장소는 장공채플실에서 진행합니다.

12. 6월 구역예배 일정

구역	장소	일시	인도자
강서 김포	김혜선 집사 사무실	27일(목) 11:00	배영호 목사
금호 성수 행당	여신도실	27일(목) 11:00	김남강 장로
신당 장충	당회실	27일(목) 15:00	조성현 장로
분당	조규곤 장로 가정	27일(목) 19:00	조규곤 장로
관악 동작 양천 여의도 영등포	국립현충원	28일(금) 11:00	최문자 장로
반포 방배 서초	예술의 전당	28일(금) 11:00	지은숙 장로
강북 노원 도봉 성북	당회실	28일(금) 11:00	최종학 장로
송파	김정애 권사 병원	28일(금) 12:30	박지호 집사
마포 홍은	강성실 권사 가정	28일(금) 19:00	채수일 목사
논현 압구정 청담	최문자 장로 가정	28일(금) 19:00	박재운 장로
연희 용산	이자희 권사 사무실	28일(금) 19:30	고순희 장로
구의	강변나들목	29일(토) 11:00	최종학 장로
개포 대치 도곡 양재	양재조각공원	29일(토) 18:00	정대제 장로
일산 1, 2, 3	김인숙 권사 가정	7월 5일(금) 11:00	정란경 전도사

13. 다음 주일(6월 30일) 예배 위원

기도	성경봉독		수요기도(7월 3일)	
장용준 장로	1부	심정기 집사·정숙희 집사	아침	최정옥 장로
	2부	박찬호 집사·진미라 집사	저녁	장미희 권사

특별봉헌 6월 16일

감사헌금: 광희찬(남편 추모), 국혜자(하나님 은혜), 김경원(십일조), 김상진·고순희(부모님 추모), 김수평·임문규(범사), 김신혜(부모님과 가족 건강 지켜주심), 노정호(항상 감사), 박정숙(범사), 박찬순(십일조), 서동인(서재이, 서준이 열네 번째 생일), 원홍재(감사), 유명숙(감사), 이공진(하나님께 항상 감사), 이규영·안지수(이다현 첫 돌), 이선열(예쁜 손녀 주심), 임복기·최경자(가족의 건강 지켜주심), 정한움(감사, 십일조), 최영철·김애련(멀리 있는 가족과의 만남), 하지는·박선희(특녀), 한현옥(범사), 허신영(손주 감사), 무기명(감사)

예배와 집회 안내

부 서	일시 및 장소	성 경 말 씀	설 교 제 목	설 교 자
유치부	주일 09:30 경동어린이집	누가복음서 19:5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이동환 전도사
어린이부	주일 09:30 장공채플실	누가복음서 19:1-10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삭개오	최고권 전도사
중 · 고등부	주일 09:30 여해문화공간	누가복음서 19:1-10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삭개오	김민정 목사
경청(청년)	주일 14:00 장공채플실	인자,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는 이		박선교 목사
화요일아침기도회	화요일 10:00 소예배실	여신도중보기도회		
금요기도회	금요일 19:30 미래를 여는방	생명평화기도회		

수 요 예 배 (6월 26일 본당)

	아침예배(오전 11시)	저녁예배(오후 7시 30분)
인도 오르가니스트 찬양	박선교 목사 이재림 집사 다함께	배영호 목사 권정원 집사 다함께
송영	오르가니스트	
예배부름	인도자	
찬송	182장(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433장(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알리는 말씀	인도자	
기도	강여옥 권사	정숙희 집사
성경봉독	시편 120편	사도행전 20:17-38
특송	-	온 맘 다해(홍지열 편곡) 여신도성가대
설교	‘응답하시는 하나님’ 박선교 목사	‘밀레도에서의 바울의 고별설교’ 배영호 목사
찬송	383장(눈을 들어 산을 보니)	222장(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축도	목사	목사
후주	오르가니스트	

다음 주일 말씀

6월 30일(성령강림 후 셋째 주일)

성 경: 구 약(열왕기하 2:9-14)

서신서(갈라디아서 5:13-25)

복음서(누가복음서 9:51-62)

설 교: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 채수일 목사